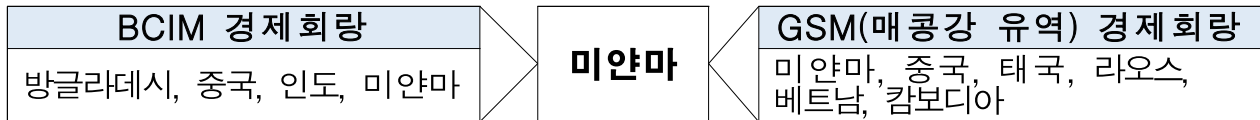

2015년 미얀마 진출전략

2015. 3. 2

kotra
양곤 무역관

1. 미얀마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지정학적 입지)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경제권과 ASEAN을 잇는 요충지



- (중국) 낙후된 중국 남서부 지역 개발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집중 투자
 - * 2014년 中 정부투자 로드맵('13.12월), BCIM 경제회랑 건설에 박차
 - * 현 석유운송로, 말라카 해협(80% 이상) → 미얀마(자욱푸)-중국(쿤밍) 내륙운송로 확보
- (인도) 동북부 내륙지방의 인도양으로의 통로 확보, 식량보급 및 천연자원 기지로서의 미얀마 역할 필수적 인식
 - * 미얀마 북서부(라카인주)와 연결, 인도내 극빈 지역인 동북부 개발 가속화
- (아세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메콩강 유역(GMS) 국가와의 경제적, 지리적 유대관계 강화 → 거대 경제권 형성
 - * GSM Economic Corridor : 미얀마, 중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 등 6개국 연결 도로망 계획

⇒ **한국기업의 중국, 인도,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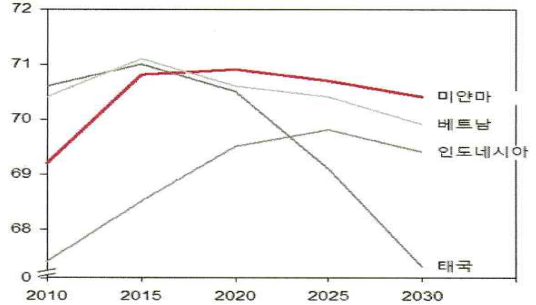
□ (소비시장) 잠재는 거대 미래시장

- 5천4백만명 규모의 내수시장, 접경지역(반경 3천KM)내 3억의 인구
 - 그러나 구매력 부족과 전기, 물류, 금융 등 소비를 위한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단기간내 수요 급증 한계
 - * 1인당 GDP(USD) : 미얀마(849), 태국(5,848), 베트남(1,523), 라오스(1,454), 캄보디아(943)
 - 접경국 내수시장도 국경지대 정정불안과 인근국 가격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접근 불가피
- 지역간 소득불균형으로 3대 거점도시 중심의 타겟마켓 형성
 - 선진국 브랜드 진입 초기 단계여서 선점 효과 다대
 - *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등 3개 도시가 미얀마 전력소비의 40% 차지

⇒ **미성숙 시장이나 선점효과를 위해 First Mover 전략 필요**

□ (생산거점) Post 차이나·베트남 최대 유망 투자지

- 인건비가 중국의 1/3 수준으로 낮고, 인구 구성비상 생산연령층(15-64세)의 비중도 현재 70%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
 - 미얀마의 미·유럽 수출 재개로 무역규모 급증, 절호의 무역투자 기회
 - * 무역 152억 달러(10/11) → 242억 달러(13/14), 투자 20억 달러(10/11) → 41억 달러(13/14)

주요국 인건비 비교 * 자료 : KOTRA			생산연령인구 비율(15-64세) * 자료 : UN	
구분	생산직 초임	사무직 초임		
미얀마	90-110	200-250		
캄보디아	130-160	220-260		
베트남	160-200	250-350		
인도네시아	250-300	350-400		
중국	250-350	450-550		

- 부동산 가격상승, 전력, 용수,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여 단기간내 미얀마 투자진출에 장애로 작용
 - * 발전용량(3,461Mw, 한국의 3% 미만), 물류지수(LPI) 155개국 중 129위

⇒ **3대 SEZ 및 전용공단 등 인프라 투자를 고려한 투자시기 조정**

□ (개발협력) 자원 및 인프라 분야 투자 기회

- 원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우리나라 6대 전략광물 자원 대량 보유
 - 특히, 2012년까지 지속된 경제제재로 서구 메이저 진출 전무
 - * 원유(3,110백만배럴), 철광석(7.2억톤), 구리(11억톤), 니켈(43억톤) -2002년 조사-
-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원조 및 차관 지원 확대
 - 파리클럽, 채무 60억 달러 면제 및 국제기구(WB 20억, ADB 6억 달러) 신규대출 재개, 향후 급격히 확대 전망
 - 한국도 '13년부터 유상원조(EDCF) 재개, 향후 5년간 약 5억불 투입 예정
-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5대 건설 인프라를 중심으로 세계은행, ADB 등의 차관을 활용한 본격적인 프로젝트 발주 러시
 - 맥킨지, 미얀마 경제개발 비용으로 2030년까지 6500억불 소요 전망
 - * 기초 인프라 개발에만 3,200억불 투자 필요

⇒ **인프라·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 및 기자재 납품 등 성장의 과실 공유**

II

2015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1-1. 2015년 핵심 이슈 : 총선 및 대선

□ 미얀마 정치개혁 주요 경과

2003년	서구사회, 대 미얀마 경제제재 실시 미얀마 군부, 민주화로 가는 7단계 로드맵 발표(헌법 제정 등)
2008년	신헌법, 국민투표 통과(유권자 98% 참가, 92.5% 찬성) - 군부, 25% 의석 할당, 부통령 및 3개 부처 장관 지명권 등 독소조항
2010년	총선 실시 및 연방단결발전당(USDP) 압승 - 883/1,154석, 76.5%, 아웅산 수치 여사의 NLD당 참여 보이콧
2011년	대선(테인 세인 대통령 당선) 및 민간 신정부 출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및 정치범 석방
2012년	미국,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12년) EU, 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13년)
 • 미얀마 개혁, 개방 의지의 시험대 •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개헌 여부가 관건	
2015년	총선 (10월 또는 11월 예상) 및 대선(총선 3개월 이후) 실시 총선에 의거 구성된 상하원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선출(간접선거)

□ 미얀마 총선 및 대선에 따른 변화

- 2015,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미얀마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 총선시 미얀마 민주화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끌고 있는 NLD당의 우세가 예상되나, 헌법상의 제약으로 수치여사의 대통령 출마 불가
 - * 대통령 후보자는 직계 가족 중 외국국적 보유자 불가(수치여사 자녀 영국국적 보유)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나, 개정을 위해선 사실상 군부의 동의 필요
 - *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얀마 정치·경제적 환경의 대대적 변화 예상
- 2015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주요 결정 사항 및 행정 지연 예상
 - 미얀마 총선('15년 10월 또는 11월)이 임박한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주요사항에 대해 총선 이후 결정 및 행정처리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상반기 내 조기 확정이 바람직
 - * 미얀마 정부 고위직도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 상반기 중 확정 조연

1-2. 2015년 주요 트렌드

□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가속화 전망

- 2011년도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민심을 겨냥한 전력, 도로, 통신,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
-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얀마 정부는 2014년 말 또는 2015년 상반기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요청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건설 기자재 및 장비의 수요가 급증세를 탈 것으로 예상
- *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 양곤 및 만달레이 공항 개선, 필라와/짜욱퓨/드웨이 경제자유구역(SEZ) 조성,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 본격화 전망

□ 정치적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미얀마 지원 활동 증가 전망

- 그동안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집중된 지원자금이 미얀마로 지원처 일부 변경
- 장기 자금의 특성상 한번 결정된 사항은 재변경 쉽지 않아
- '12년을 기점으로 국제기관의 대 미얀마 개발 지원 재개 본격화
- * (WB) Essential Health Services Access Project(\$100백만) 등 7건
- * (ADB)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mprovement Project(\$225백만) 등 37건
- * (IFC) YESC 민영화, Yoma Equity 투자, SL Myanmar 투자 등 6건

□ 미얀마-국제세계 관계 개선으로 대 미얀마에 대한 지원 및 기대 증가 예상

-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원조 및 차관 지원 확대 전망
- 파리클럽, 채무 60억 달러 면제 및 국제기구(WB 20억, ADB 6억 달러) 신규대출 재개
- 일본, 2012년 4월 미얀마의 대일 부채 3천억엔을 단계적으로 탕감 및 2013년 5월 2000억엔 추가 탕감, 400억엔의 무상원조, 510억엔의 신규 차관 제공
- 중국, 6억불 차관 제공 제안(미얀마 의회 2013.8월 1억불 차관 승인)
-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 5년간 5억달러 지원, 무상원조 3천만불 수준으로 확대
- 국제사회에서의 미얀마 역할 강화 및 성장에 대한 기대 증가
- 2013년 12월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 개최와 2014년 아세안의장국 지위 수행을 계기로 미얀마의 국제적 위상 상승 전망
- * 2014. 11월 네피도에서 ASEAN+(韓, 美, 日, 中 등) 정상회담 개최

III

미얀마 시장 진출전략

1. 미얀마 시장 진출전략 개요

□ 한-미얀마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

- 개발경험, 새마을 운동, 기술혁신 역량, 한류 콘텐츠 등 한국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관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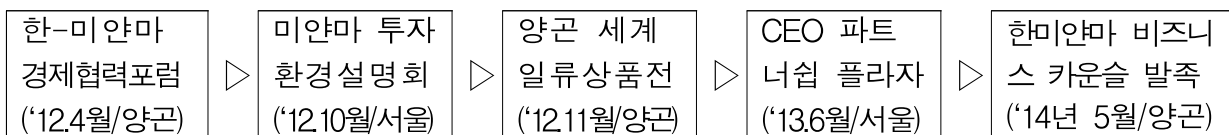
- 미얀마의 정책수요와 국내기업의 진출 수요를 매칭

* 참고 : 테인세인 대통령의 경제 키워드 ‘인간 중심의 경제개발’

- 일자리, 민생, 8대 핵심분야 FDI 유치, 중소기업 협력 등

- 양국간 정상외교 및 고위급 상호방문을 활용, 국가 마케팅 차원의 전략적 사업 추진

- * 한-미얀마 협력사업 추진사례



□ 주변국과의 전략적 제휴

- 중국, 인도, 태국 등 접경국은 물론 일본, 미국, EU 등 미얀마 개발협력을 추진 중인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

- * 예 : 일본의 Financing + 한국의 EPC 접목

* 참고 : 대우 가스전 진출 사례

- 중국의 서남부 개발계획과 연계. 미얀마 가스전 판로 확보

□ 미얀마 경제발전과정별로 차별화된 단계적 진출전략 수립

- 미얀마의 미래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 경제발전 단계 및 개방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전략 필요

단기	First Mover로서 시장개방 분야 선점, 상생협력의 기반 조성
중기	기술, 금융 등 기업경쟁력 확보
장기	ASEAN 핵심 거점으로 육성

* Aung Tun Thet(대통령경제고문) : 미얀마는 PDD(Peace/Democracy/Development)의 3대 과제를 동시에 진행 중→ 완급을 조절하며 단계별 진행 불가피(‘14.2.20)

2. 분야별 추진전략

2-1. 상품/서비스(지식서비스)교역

□ 시장개방 초기 특수 선점을 위한 10대 유망품목 타겟마케팅

-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수요, 미얀마 정부의 농업생산 증대 정책, 전력난 해소, 노동집약적인 봉제업 투자 증가 등 시장 기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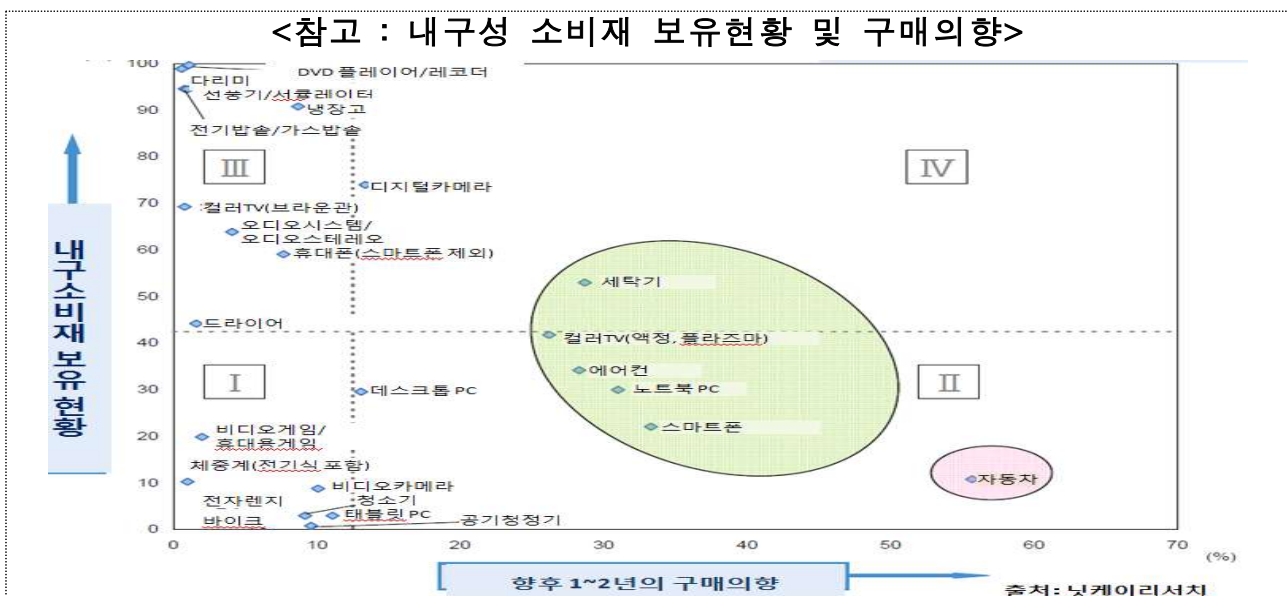
기획요인	유망품목	현황 및 진출방안
인프라 건설	① 건설중장비	▪ 시장규모('12) : 10,315만달러, 전년대비 20% 증 ▪ 경쟁 : 중국산, 일본산이 시장 주도 ▪ 정부부처(품질중심의 마케팅), 민간광산개발자(중고장비) 등 차별화
	② 철강제품	▪ 시장규모('12) : 1,22,819만달러, 전년대비 166% 증 ▪ 태국, 중국 등으로부터 연간 60-70만톤의 철강 수입 ▪ 대형 건설사의 무역회사를 타겟팅
	③ 펌프/밸브	▪ 시장규모('12) : 9,992만달러, 전년대비 38% 증 ▪ 경쟁 : 태국 중국산 주류, 전량 수입 ▪ 델타지역 농업 개발 등과 연계한 특수 공략
	④ 페인트	▪ 시장규모('13) : 540만달러, 전년대비 64.3% 증 ▪ 싱가포르, 태국 등이 전체 수입시장의 91% 차지 ▪ 프리미엄급 건설프로젝트와 연계한 품질 마케팅
농업개발	⑤ 농기계	▪ 시장규모('12) : 1,170만달러, 전년대비 23% 증 ▪ 한국산, 태국산이 주류(국제 등) ▪ 미얀마 농업기계화 정책 활용, 농공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개발과 연계한 농기계 동반진출
	⑥ 비료/농약	▪ 시장규모('12) : 비료 6,546만달러, 38% 증 ▪ 시장규모('12) : 농약 3,271만달러, -18% 감 ▪ 경쟁 : 중국, 태국산이 시장 주도 ▪ 농공시범 단지, 에야와디 개발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동반 진출
에너지	⑦ 전력케이블	▪ 시장규모('13) : 7,622만달러, 전년대비 80% ▪ 경쟁 : 중국(38%), 한국(28%)이 주류 ▪ 정부 입찰수요 타겟팅
	⑧ 발전기	▪ 시장규모('13) : 5,351만달러, 전년대비 28.2% ▪ 경쟁 : 인도네시아(31%), 중국(14%), 독일(12%) 등 ▪ 건물 신축붐과 연계, 산업용 발전기 공급 확대
생산기지 이전	⑨ 섬유기계	▪ 시장규모('12) : 2,109만달러, 전년대비 27% (전량수입) ▪ 중국(10%), 싱가포르(3%), 한국(1%) ▪ 봉제공장 신설 및 증설수요와 연계
	⑩ 원단	▪ 시장규모('12) : 19,449만달러, 전년대비 37% 증가 ▪ 중국산(57%), 태국(34%)이 주류 ▪ 중국 및 베트남 등 생산기지로부터의 공급 확대 및 설비 이전 검토

□ 3대 대도시 중산층 중심의 내수시장 선점

- 상대적으로 구매력을 갖춘 대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내구성 소비재 및 생활용품 진출 확대
- 거점도시 중심에서 지방 내수시장으로의 점진적인 확산전략 필요
- * 양곤(457만명), 만달레이(124만명), 네피도(92만명)

구 분	유망품목	현황 및 진출방안
내구성 소비재	① 자동차	▪ 시장규모('13) : 28,093만달러, 전년대비 -33% 減 ▪ 경쟁 : 일본(98%)이 시장 독점, 신차 시장 확대 추세 ▪ 부품조달 등 A/S망 확보 및 마케팅 강화
	② 휴대 폰	▪ 시장규모('13) : 89,204만달러, 전년대비 184.9% 增 * 전화보급률 10% 미만, 정부의 이동통신 보급확대 계획 ▪ 고급(iPhone, Galaxy, LG G시리즈), 중급(HTC one x, Vivo Y17) 등 ▪ 고가품 시장외에 미얀마 폰트를 제공하는 중저가폰 공략
	③ 에어컨	▪ 시장규모('13) : 5,131만달러, 전년대비 45.4% 增 ▪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이 주류 ▪ 신규 오피스빌딩, 호텔, 레지던스 등 건설 수요와 연계
생활용품	④ 화장품	▪ 시장규모('13) : 4,406만달러, 전년대비 36.7% 增 ▪ 태국(59%), 싱가포르(19%), 한국(12%) ▪ 한류와 연계,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 확보
	⑤ 의약품	▪ 시장규모('13) : 24,322만달러, 전년대비 110% 增 ▪ 인도(50%), 태국(24%), 중국(10%)이 주류 ▪ 현지 FDA승인 등을 위해 역량 있는 유통업체 선정이 관건
	⑥ 정수기	▪ 시장규모('13) : 1,111만달러, 전년대비 116% 增 ▪ 중국(31%) 태국(13%)이 시장 주도, 한국(5.7%) ▪ 한류와 연계, 프리미엄급 정수기능 홍보

<참고 : 내구성 소비재 보유현황 및 구매의향>



2-2. 투자진출/투자유치

□ 공적자금과 연계, 프로젝트 진출 확대

- 우리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고려한 공적 원조자금 프로젝트 발굴 강화
 - * 프로젝트 설계 초기부터 우리기업 진출과 연계 (예: 지역개발/송전망/ICT 등)
- 무상원조(ODA)과 유상원조(EDCF)사업간 연계 강화
 - *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사업(KOICA 원조)→ EDCF 활용 미얀마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
- 다자간 개발은행(MDB)등의 공적자금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각화
 - *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국제금융공사(IFC),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 미얀마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우리기업의 향후 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대
 - * 환경개선, 통합데이터망, 간선도로망, 양곤 남서부개발, 에아와디강 수자원 개발 등

□ 한-미얀마 전략적 협력분위기 확산

-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통해 상생발전의 파트너십 구축
 - 새마을 운동 확산, 농촌개발, 미얀마 경제개발연구원(MDI), 무역투자진흥기관(MYANTRA) 설립지원 등 발전 노하우 전수
- 한-미얀마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정례 교류 채널 구축

* 한-미얀마 비즈니스 카운슬 구축('14년)

- '13년 기구축된 정부간 채널(경제협력 공동위원회)와 연계, 비즈니스 채널 구축
- '13년 UMFCCI 회장 방한시 요청, 제조업, 건설/플랜트, 에너지/광물 자원, 농림수산, IT, 무역 및 투자 등 6개 분과로 구성

- 민간차원의 한-미얀마 경제·문화 교류 확대

* 한국상품전(한인회), KOREA Week(대사관, KOTRA), K-Pop Concert(민간) 등

- 나눔과 기쁨, 굿네이버스 등 NGO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CSR 강화

* 참고 : 중국 CSR 사례

- 국경지역 댐 건설시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관계에만 주력하여 공사 무산
→ 이후 송유관 공사현장 마을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CSR 활동 강화

2-3. 건설·플랜트

□ 전력

- 전력분야는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에서 관장하며, 부족한 전력을 외국인투자를 통해 추진중
- * 전력부 산하에 Hydropower Generation Enterprise(HPGE), 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MEPE), Electricity Supply Enterprise(ESE) 및 Yangon City Electricity Supply Board(YESB)가 있음
- 수력발전소(총 전력의 60% 이상 해당)는 미얀마 북동부에 위치(주로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미얀마남부에 위치한 전력소비도시 양곤은 전력이 부족, 미얀마 남북간 송배전시스템의 중요성이 큼
- * 낙후된 송배전시스템으로 인하여 전력손실율이 30%에 육박, 미얀마 북부와 남부를 잇는 400여 km에 달하는 500kV 송전선시스템 구축에 세르비아, 우리나라, 일본의 원조자금(EDCF)을 지원
- 2012년 한국의 서부발전컨소시엄 등이 양곤, 다웨이, 짝푸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전력공급 단가, 천연가스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건설·인프라

- 건설·인프라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등에서 관장하며, 민간정부 수립에 따른 개방화 및 경제개발에 따라 막대한 인프라 건설 수요 예상(특히, 경제제재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능)
- * 미얀마의 도로, 철도, 통신, 항만, 전력 등 인프라 수준은 한국의 70년대 수준
- 미얀마내 외국기업간 경쟁심화에 따라, 개별 기업별 접근보다는

미얀마 정부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춘 민관합동 패키지 전략 추진이 필요

- * 민관합동으로 파이낸싱 부담 후 인프라 개발에 따른 수익을 미얀마 보유자원으로 대체

2-4. 자원협력

□ 석유·가스

- 미얀마의 석유·가스분야는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에서 관장하며, 산하의 3개 공기업에서 실무를 담당
 - * MOGE(Myanmar Oil & Gas Enterprise) : 석유가스의 탐사, 생산 및 이송
 - * MPE(Myanmar Petroleum Enterprise) : 정제소, 질소비료공장, 메탄올·LPG 공장 운영
 - * MPPE(Myanmar Petroleum Products Enterprise) : 석유제품 마케팅 및 보급 관장
- 석유·가스 개발에 대규모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중
 - 해상광구('13.12월기준) : 총 51개 (운영 21개, 국제입찰 30개)
 - * 미얀마의 석유개발 경험 부족으로 개발·운영권을 주로 외국 석유기업들에게 분양
 - 육상광구('13.12월기준) : 총 53개 (운영 18개, 국제입찰 18개)

- * (해상광구) 1965년 산업국유화 정책에 따라 모든 외국 석유회사들 축출(MOGE가 육상 & 해상 석유·가스 독점), 1974년부터 외국기업에 분양개시
- * (육상광구) 1989년에 외국회사에 광구 분양전까지 MOGE가 육상광구 독점 운영, 1990년대 이후 노후된 육상 석유·가스 개발을 위해 에너지부는 외국석유회사와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

□ 광물자원

- 미얀마의 광물자원분야는 광업부(Ministry of Mines)에서 관장하

며, 동,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철, 석탄, 석유, 보석류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갖고 있으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소량

- * 1994년 광업법 제정후, 외국기업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이 허용되었으나, 아직도 생산과 수출은 미얀마 정부가 크게 관여하고 있는바, 최근 광업법 개정안을 준비중

- 미얀마는 광물자원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나, 전력·도로·개발장비 등 인프라 미비와 소수민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해당지역 접근곤란 등의 이유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 *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등이 진출중이고, 주요관심 광종은 금, 주석, 텅스텐, 납, 아연, 구리 등 임

- 미얀마 최대 광산개발 프로젝트는 Latpadaung Copper Mine Project로서, 2010년 중국 Wanbao사가 캐나다 Ivanhoe사로부터 이전받아 현재는 미얀마 공기업 UMEHL과 Wanbao사가 합작으로 추진중

- * 사업추진중 환경문제, 종교적문제(파고다 이전), 주민보상문제 등으로 소요사태가 발생, 양사 지분을 재조정하여 계속 추진 결정

- * Wanbao사는 이미 6억불을 투자했고 월 4만톤의 구리를 생산중이고, 총 투자규모는 9억 9천 7백만불임

- '13.6.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미얀마 에너지·광물자원분야 GDP 기여분이 80억불이고, '30년까지 동분야 GDP는 217억불 기여 가능하며, 동 분야 최고 GDP 기여분은 2,000억불까지 성장 가능

□ 농림/수산

- 농촌개발사업 등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활용, 농업기술 전수조림/수산분야 한국 전용 단지 개발(계약재배 등)

- * 한국기업 MSC, 미얀마 남부 해역에서 해조류(식품 및 의약품 첨가제) 양식 투자

- * 오토산업, 미얀마 남부 고무농장 조림 투자

* KD 파워, 미얀마정부로부터 영농산업단지 F/S 조사권 획득

- 대규모 농지 확보를 통한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정미소, 가공 식품 제조, 저온저장창고 건립, 비료 등 농업 관련 산업도 유망

2-5. ODA

☐ 對 미얀마 무상원조(KOICA) 현황

연도	'91-'00	'01-'05	'06-'10	'11	'12	'13	'14	계
금액(천불)	4,766.8	9,138.4	18,104.4	4,978.8	5,556.9	11,254.6	16,377.4	77,976.7

☐ 유상원조(EDCF)

- '92~'04년간 6개 사업, 8,470만불 지원('04년이후 지원중단, '11년 재개 결정)
- '13년 EDCF로 재개 결정 및 향후 5년간 5억달러 배정
- 주요 논의 현황 프로젝트('15.1월 현재, 사업규모 등 추정)
 - 500kv 송전망 구축 사업(1억불)
 - * 미얀마 중부의 따웅구에서 남부의 카마나까지 구축
 - ICT 백본망 구축사업(5.6천만불)
 - * 미얀마 전역에 2,700km 이상의 백본망 구축 예정
 - 우정의 다리(Friendship Bridge) 건설사업(규모 및 시기 미정)

【별첨】

가. 미얀마 경제동향

(1)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2015년 미얀마 경제 7.8%의 고성장 지속, 6.9%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악재

- 2015년 미얀마의 실질 GDP 예상 성장률은 7.8%로 2012년 이후 7% 이상의 고속성장세 지속 전망(12/13년 7.3%, 13/14년 7.5%, 14/15년 7.9%, IMF)
 - 에너지 및 통신 투자 확대, 건설 및 서비스 분야 호황세 지속, 기초원자재 수출 증가, 관광객 유입 및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이 성장 동력
- 단기간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2014년 6.9%의 인플레이션 우려
 - 공공부문 급여 인상, 전기료 인상,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적자 확대, 정부의 제한된 거시경제 관리 능력 등이 주원인
- 외환 유입 급증, 무역적자 유입 확대, 낮은 외환보유고, 중앙은행의 외환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성 증가
 - 이동통신허가권 판매액, FDI, 차관 등 외환 유입 증가, 수입 급증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낮은 외환보유고, 중앙은행 외환관리 부재 등이 주원인

□ 단기 압축 성장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임금상승 등 부작용 확대

- 2011년 신정부 출범과 서방세계의 경제재제 해제 또는 완화 이후 단기간내 국제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단기 압축성장에 따른 부작용 발생
 - 부동산 가격 급등, 임금상승 압박, 물가 상승, 전문인력 부족, 행정처리 지연 등
- 임금 상승 압박, 부동산 가격급등 등의 인플레이션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스 등 천연자원 생산 증가, 교통 및 통신 분야의 투자 확대,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는 유지 전망
- IMF, 미얀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7% 이상의 고성장 잠재력 보유했으나, 제도

적, 정책적 뒷받침 되어야 지속적 성장 가능 지적

- 풍부한 천연자원, 비옥한 토지, 젊고 낮은 임금의 노동력, 지정학적 위치 등 7% 이상의 고성장 요건 충분하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인프라, 건강, 교육 등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가 필수적 지적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3				
국가 일반	인구	(명)	5,142만 명(2014년 8월 정부 발표), 가용 노동인구(3,735만 명)				
	면적	km ²	676,563km ²				
	한반도 대비면적	배	약 3.5배, 남한의 약 6배				
	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4-8	2015(예상)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5.9	7.3	7.5	7.8	7.8
	1인당 GDP	US \$	900	876	869	910	959
	명목 GDP	US \$ 십억	42.23	45.31	48.74	52.51	56.60
	순정부 부채/ GDP*	%	49.16	47.27	42.66	43.16	44.32
	소비자 물가상승률	%	.2.77	2.83	5.82	6.63	6.85
	실업률	%	4.02	4.02	4.02	4.02	4.02
	수출실적	US \$ 백만	9,135.6	8,877	11,204	4,708.4	N/A
대외 경제	수입실적	US \$ 백만	9,035.1	9,068.9	13,759.5	6,504.6	N/A
	무역수지	US \$ 백만	100.5	-191.9	-2,555.5	-1796.2	N/A
	외국인투자 금액(당해분)	US \$ 백만	4,644.46	1,419.46	2,781	N/A	N/A
	총외채	US \$ 백만	7,770	2,563	2,561	2,495	3,009
	외환보유고	US \$ 백만	7,017	6,977	8,278	8,727	9,417
	이자율	%	16.3	13.0	13.0	13.0	13.0
	환율	US \$	815	853	930	980	990

자료원: IMF, 미얀마 중앙 통계청, 기타(EIU Country Report 2015년 1월호)

□ 미얀마 수출입 동향

- 2011년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미얀마의 수출입은 2013/14회계연도에도 이어져, 미얀마의 수출은 112억 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30억 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4% 증가
- 2013/14회계연도의 무역수지는 △25억 55백만달러로 '11/12 회계연도에 처음 적자를 기록한 이래,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천연가스, 쌀, 수산물, 콩류 등 1차 산물의 수출 감소와, 제조업 및 건설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재, 건설장비 및 자재, 원단 등 기초원자재와 차량, 정제원유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
- 2014/2015회계연도의 경우, 8월까지 미얀마 수출은 47억 8백만 달러, 수입은 65억 4백만 달러로 17억 96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쌀과 콩의 수출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참깨, 고무, 수산물 등이 감소를 기록

미얀마의 수출입 동향

(단위 : US\$ 백만)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US\$백만	증감률
2009/2010	7,586.9	11.9%	4,181.4	-8.0%	3,405.50	52.3%
2010/2011	8,861.0	16.8%	6,412.7	53.4%	2,448.30	-28.1%
2011/2012	9,135.6	3.1%	9,035.1	40.9%	100.5	-95.9%
2012/2013	8,977.0	-1.7%	9,068.9	0.4%	-91.9	-91.4%
2013/2014	11,204.0	24.81%	13,009.7	43.45%	-2,555.5	-2,780%
2014.4-8	4,708.40		6,504.6		-1,796.2	

자료원 : 미얀마 중앙 통계청, Selected Monthly Indicators (2015.1월)

- 2013/14 회계연도의 수출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천연가스, 티크 및 하드우드, 콩류, 의류, 수산물 등이며, 수입 품목은 기계 및 운송 장비, 정유, 비금속 제품, 전기기계, 직물, 자동차, 중장비 등임

미얀마 10대 수출입 품목(2013/14)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2013/2014	품목명	2013/2014
	총 수출	11,204.0	총 수입	13,009.7
1	가스	3,299.2	기계 및 운송수단	4,145.4
2	옥(Jade)	1,011.6	정제된 광유	2,300.3
3	의류	884.7	비철금속 및 제 조 품	1,542.8
4	티크	667.9	전자 기기 및 기구	708.2
5	쌀	460.1	식용 식물성 기름 및 기타 경화유	514.5
6	검은콩(Matpe)	376.4	플라스틱	467.8
7	수산물 및 관련 품	370.7	인조 및 화학 섬유	405.9
8	참깨	340.6	의약품	253.0
9	견목재	311.0	비료	231.1
10	녹색콩(Pedessein)	310.1	시멘트	204.2
-	기타	3,171.7	기타	2,986.3

자료원 :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 수출관련 애로사항

수출관련 애로사항	점수(0-7) * 높을수록 애로사항 큼
까다로운 수입통관 절차	6
글로벌 표준과 상이	3
인증취득 어려움	3
취약한 물류인프라	7
높은 관세율	5
주재국의 외환규제	7
세관의 자의적 관세율 적용	5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 상존	6
바이어 신용도 조회 곤란	7
비자 취득 애로	6
무역제재/통상마찰 가능성	3
L/C개설 어려움	5
프로모션 경비지원 요청	3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상존	6
기업의 수출운영자금 부족	3
유사제품의 주재국내 경쟁 치열	4
동일품목의 주재국내 경쟁치열	4
주재국 수입시장의 축소	4
낮은 브랜드 인지도	4
해외 유통망 확보 곤란	3
원자재 가격 상승	3
온라인 무역인프라 부족	7
시장정보 부재	7
수출지원 제도 미비	7
언어장벽(바이어교신 곤란)	5

□ 미얀마 외국인투자 동향

- 대 미얀마 외국인 투자 누적 승인액 502억 21백만 달러를 기록(14.10월말)
- 2014/15 회계연도간 투자유치액은 31억 86백만 달러로 오일 및 가스, 제조업 및 교통 분야 투자 급증에 힘입어 크게 확대

연도별 대미얀마 투자 유치액

(단위: US\$백만)

구분	2000/01	2003/04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4-10
금액	218	91	6,066	19,999	4,645	1,420	4,107	3,186.4

주: 연도별 통계기준은 4.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임. 연도별 승인액 기준

자료원: 미얀마통계청(2014.12월 발표기준)

-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투자국가인 가운데, 싱가포르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세
- 1위 중국(\$144.7억), 2위 태국(\$102.1억), 3위 싱가포르(\$70.2억), 4위 홍콩(\$66억), 5위 영국(\$34.5억) 6위 한국(\$31.9억)순 * 누적승인액 기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2014.10월)

(단위: US\$백만)

국별	건수	투자액	비중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중국	78	14,469.707	28.8	전력	8	19,324.542	38.48
태국	81	10,212.764	20.3	석유와 가스	132	15,177.318	30.22
싱가포르	142	7,023.785	14	제조업	416	4,640.907	9.24
홍콩	90	6,604.275	13.2	광업	69	2,863.18	5.7
영국	76	3,454.178	6.88	교통/통신	27	2,858.042	5.69
한국	104	3,196.825	6.37	호텔/관광업	57	2,154.59	4.29
말레이시아	50	1,654.117	3.29	부동산 개발	28	2,120.146	4.22
베트남	7	513.186	1.02	축산/어업	32	441.318	0.88
프랑스	3	474.36	0.94	농업	16	240.645	0.48
네덜란드	10	398.341	0.79	산업단지 개발	3	193.113	0.38
인도	15	382.696	0.76	기타 서비스	22	169.697	0.34
기타	156	1,837.031	3.65	건설	2	37.767	0.08
합계	812	50,221.265	100	합계	821	50,221.265	100

자료원: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주: 투자허가기준 (2014.10월말 기준) 누적치

- 산업별로는 대 미얀마 수출입 제재 완화 이후 제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
- 전력 (\$193.2억), 석유가스(\$151.2억), 제조업(\$46.4억), 광업(\$28.6억), 교통/통신 (\$28.6억), 호텔/관광업(\$21.5억)의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대 미국 수출입 재개, EU의 GSP 지위 부여 등의 원인으로 봉제업 등 CMP 분야의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Ooredoo와 Telenor 2대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등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통신과 방문 수요 급증에 따른 호텔, 관광업 분야의 투자도 증가세
- 외국인은행 지점 신규허가로 금융 및 서비스업 분야 투자 증가 전망

산업별 투자동향

(단위: US백만)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4-8
농업	-	138.8	-	9.7	20.3	5.6
축산/어업	-	-	-	5.6	96.0	11.7
광업	2.5	1,396.1	19.9	15.3	32.7	0.8
제조업	33.2	66.3	32.3	400.7	1,837.0	327.9
전력	-	8,218.5	4,344.0	364.2	46.5	40.1
석유/가스	278.6	10,179.3	247.7	309.2	-	676.4
교통/통신	-	-	0.6	-	1,190.2	1,353.9
호텔/관광	15.3	-	-	300.0	435.2	291.6
부동산개발	-	-	-	-	440.6	366.3
기타	-	-	-	14.8	16.4	98.1
합계	329.6	19,999.0	4,644.5	1,419.5	4,107.1	3,183.4

자료원: 미얀마통계청(2014.12월 발표기준)

○ 투자진출 애로사항

투자진출 관련 애로사항	점수(0-7) * 높을수록 애로사항 큼
수출입여건(관세, 통관, 쿼터 등)	6
법률제도(행정불투명,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차별)	7
투자인센티브 미비	6
생산요소(임금, 지가, 공공요금 인상 등) 미비	6
투자 인프라(도로, 전력, 용수 부족 등) 미비	6
노무관리(숙련공 확보 어려움, 노사분규 등) 어려움	6
민주화 시위 등 정치적 불안정	5
주재국 정부의 투자관련법 변동에 의한 손실 가능성	5
금융관련(차입여건, 외화사용, 과실송금 등) 어려움	7
조세부담(조세 및 준조세 부담) 높음	5
영업 관련(내수장벽, 대금회수, 공정거래, 업계경쟁 등) 어려움	4
까다로운 외환관리제도	7
산업고도화(기술격차 축소, 환경규제 강화)	2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문제 등) 미비	7
정보취득(신규 정보 취약 등) 어려움	6
교육여건(자녀 교육 및 입학문제 등) 열악	4

거주여건 열악	4
언어문화 차이(언어, 문화상 차이로 인한 부작용 등)	3
기 진출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요소 부재	3
생산관리(원부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어려움	3
판매망 확보 곤란	3
주재국 시장 확대 가능성 낮음	2

(2) 미얀마 산업 동향 및 주요 산업정책

□ 산업 개요

- 주력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이며, 해상 천연가스전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자원개발 분야 비중이 커지는 추세

* 산업별 GDP 비중('11) : 농림수산업 29.2%, 광공업 32.1%, 서비스업 38.7%

가. 에너지·자원

- 동,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철, 석탄, 석유, 보석류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갖고 있으나, 생산량은 소량

* 중국은 미얀마와 정상급 외교를 통해 Tagaun Taung(니켈광산), Monywa(구리 광산) 등 주요 광산을 대거 확보

< 미얀마 주요 자원 보유 현황 >

구 분	단 위	매장량	비 고(세계 비중)
원유	억배럴	3.2	0.25%
천연가스	Tcf(조입방피트)	22.5	1.07%
철광석	십억톤	0.3	0.38%
석탄	십억톤	0.2	-
니켈	백만톤	40	-
동	백만톤	21	-
아연	백만톤	14	-
텅스텐	천톤	15	0.8%

* 2010년 기준(추정), KORES, UNDP, 에너지경제연구원, 양곤무역관 종합

나. 천연가스

- Yadana 및 Yetagon 가스전 개발로 2001년부터 미얀마 최대 수출품(연간 25억불, 전체 수출의 약 40% 차지)
 - 현재 생산량은 Yadana 650MMcf/d, Yetagun 450MMcf/d
 -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북서부 A-1, A-3 해상광구에서 천연가스 개발중, '13.7월부터 400MMcf/d의 가스 생산 중
- * '08년말 중국석유공사(CNPC)와 판매계약 체결, 벵갈만-중국 서남부간 가스관('13.10월) 및 송유관('14.8) 건설 완료

< 미얀마 주요 가스광구 현황 >

구 분	Yadana	Yetagun	A-1, A-3	M-9
대 주 주(국가)	Total(프)	Petronas(말련)	대우인터(한)	PTTEP(태국)
상업생산	1998	2000	2013	2013
매장량(Tcf)	6.4	4.2	4.5	1.7

다. 전력

- 급속한 전력 수요 증가에 비해, 설비 부족 및 송배전계통 불안정으로 전기 공급의 어려움에 직면, 전력 부문의 개발이 미얀마 정부 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
- 풍부한 수자원으로 수력발전이 71.4%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가스발전 25.5%, 석탄화력 3.1%로 구성(발전용량 기준)

< 미얀마 전력설비용량 현황('13.7월) >

구 분	총계	수력	가스	석탄
발전설비(MW)	3,896	2,780	996	120
비율(%)	100.0	71.4	25.5	3.1
발전소 개수	35	20	14	1

< 미얀마 전력생산 현황('12.4-'13.3) >

구 분	총계	수력	가스	석탄	디젤
발전량(Kwh)	9,738	6,539	2,377	771	50
비율(%)	100.0	67.2	24.4	7.9	0.5

- 고온 건기인 여름철에는 수력 발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여름철 전력난 해소에 큰 역할
- 미얀마 전력부는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3.1월말 기준 89개의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 이중 67개가 승인(현지 기업 58개, 외국기업 9개 승인)

라. 제조업

- 농림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대부분, 식음료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약 80% 차지
- 농림수산물 수출이 현재 주요 외화가득원이고, 합판, 가구 등 임업 관련 제조업을 내수 및 수출용으로 지속 육성
- 수출을 전제로 한 봉제업은 농수산 기반 제조업 다음의 최대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
 - '03.7월 미국의 미얀마 제품 금수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유럽, 일본 등의 대체시장을 발굴 '05년부터 회복하기 시작, '10년 이후 경쟁국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호황세 지속

마. 프랜차이즈 산업

- 미얀마의 국민소득 증가와 현지의 한류를 바탕으로 한 프랜차이즈 산업 진출이 확대 추세
 - * 2013.4월에 외국계로서는 처음으로 개장한 롯데리아 미얀마 1호점은 1일 매출이 해외 매장 중 1위 차지(현재 8호점 개설)
 - * BBQ도 현지기업인 YKKO와 합작으로 진출(현재 4호점 개설)
- 미얀마의 한국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외식업뿐만 아니라 뷰티, 미용, 서비스 등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으로 확대
 - * Snow Factory, 유가네 닭갈비, 불고기 브라더스 등의 요식업 중심에서 최근 문구 팬시(Art Box) 등으로 확대중

□ 미얀마 산업육성정책 및 통상정책

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2~2016) 수립 및 추진

-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11년 신정부 출범 직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12 ~ 2015/16)을 수립하여 연평균 10.5%의 성장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수출입, 오일&가스 개발 확대, 산업공단 및 경제특구 조성을 중점 분야로 삼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을 위해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개발계획명칭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2~2016)
 - 개발분야 : 외국인투자유치, 제조업수출산업화
 - 우선순위 : 제조업, 자원개발, 수력발전, 광물자원, 정보통신, 경제특구개발 등

나. 1백만 일자리 창출, 미얀마 정부 최우선 과제

- 지난 2013년 미얀마 정부는 낮은 국민소득과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하여 1백만 일자리 창출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 지식기반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선정,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업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음
- 미국 CIA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의 미얀마의 실업률은 5.4%로 세계 평균인 5.5%와 비교시 오히려 낮은 수준이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재로 인해 노동인구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실업률은 5.4%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됨

다. 한-아세안 FTA

- 2007년 6월 1일부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되었다. 아세안의 회원국인 미얀마도 동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예정이나 아세안 회원국 중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양허안의 이행시기는 다소 연장됨

- 미얀마의 경우, 일반품목의 경우 2015년까지 0~5%(일반품목의 50%)로 인하, 2017년까지 일반품목의 90%에 대하여 관세 철폐, 2020년 일반품목 전체에 대하여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 민감품목의 경우 2020년까지 20%, 2024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될 예정임

일반 품목군 관세인하 스케줄

Applied MFN Tariff Rate X	ASEAN-Korea FTA Preferential Tariff Rate(Not later than 1 January)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 or = 60	60	50	40	30	20	10	0
45 % <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5%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5*	7.5*	7.5*	7.5*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Standstill						0

(3) 경쟁국가 글로벌기업들의 동향 및 현황

□ 주요국의 대 미얀마 수출입 동향

- 미얀마의 교역은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인도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주요 수출국으로는 태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싱가포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임.
 - 한국의 경우, 미얀마 통계청 기준 2013/14 회계연도 기준, 1,272백만달러 수출, 353백만달러 수입하여 919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미얀마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명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4-8
1	태국	3,215.68	2,905.18	3,823.83	4,000.57	4,306.28	1,486.64
2	중국	617.16	1,203.56	2,214.30	2,238.07	2,910.75	1,836.39
3	인도	1,013.14	871.59	1,045.99	1,018.62	1,143.59	232.66
4	일본	177.35	237.43	320.20	406.49	513.25	185.71
5	싱가포르	670.41	456.99	542.75	291.35	694.03	199.69
6	한국	75.58	148.39	214.82	280.77	352.92	124.57
7	말레이시아	152.61	437.80	152.04	97.92	108.87	144.06
8	인도네시아	37.43	41.11	40.94	31.54	60.04	191.45
9	독일	40.89	38.34	42.33	42.98	40.36	28.84
10	홍콩	37.06	34.80	16.58	26.94	489.10	28.54
-	기타	638.95	625.92	696.93	541.75	584.81	249.85
총합계		7,586.90	8,861.00	9,135.60	8,977.00	11,204.00	4,708.40

자료원 : 미얀마 중앙 통계청, Selected Monthly Indicators

주: 순위는 2013/2014연도 기준. 연도별 통계기준은 4.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임

미얀마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명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4-8
1	중국	1,258.19	2,168.52	2,786.84	2,719.47	4,105.49	2,104.45
2	싱가포르	1,202.19	1,645.32	2,516.13	2,535.43	2,910.22	1,422.18
3	일본	259.11	256.35	502.17	1091.73	1,296.24	645.5
4	태국	378.68	709.09	691.15	696.81	1,376.99	733.11
5	한국	224.06	304.23	451.93	343.21	1,271.98	221.95
6	인도	193.52	195.46	325.38	301.70	493.51	331.14
7	말레이시아	159.52	145.32	303.41	360.90	839.69	247.56
8	인도네시아	140.07	275.49	431.82	195.23	438.82	214.21

9	미국	18.51	59.47	263.62	119.99	79.66	122.51
10	독일	33.38	52.10	95.12	144.55	83.24	21.60
-	기타	314.17	601.35	667.53	559.88	113.86	440.39
총합계		4,181.40	6,412.70	9,035.10	9,068.90	13,009.70	6,504.6

자료원 : 미얀마 중앙 통계청, Selected Monthly Indicators (2015.1월)

□ 주요국별 미얀마 진출동향

- 최근의 미얀마 대형 투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주도
 - 2012/13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베트남이 3건 3억 달러의 신규 투자승인을 받아 투자를 주도, 중국 2건 2억 2천만 달러, 싱가포르 5건 5천 5백만 달러, 일본 7건 4천 3백만 달러, 영국 2건 3천 9백만 달러, 인도 2건 1천 1백만 달러를 기록
 - 2013/14 회계연도에는 싱가포르 25건 23억 달러, 말레이시아 3건 6.2억 달러, 태국 9건 5.3억 달러, 영국 10건 1.6억달러 순으로 투자 주도(한국 13건 81백만달러 승인)
- 대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영국 등 서구세계의 투자 증가세
 -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 여파로 아직까지는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들의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식음료,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 덴마크 등의 투자도 증가세를 나타냄
 - 한편, 그동안 투자를 주도해왔던 중국은 미얀마 짜옥푸 가스전과 중국 쿤밍을 잇는 CNPC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상반기 중 거의 완공됨에 따라 신규 투자가 다소 감소
 -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의 경우, 호텔, 레지던스, 쇼핑몰 등 상업 및 거주용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봉제업 및 CMP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 증가세

회계연도별/국가별 투자동향

(단위: U\$백만)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4-8
싱가포르	39.2	226.2		418.2	2,340.1	1,986.5
말레이시아	237.6	76.8	51.9	4.3	56.4	6.7
태국	15.3	2,146.0		1.3	489.1	111.5
영국		799.0	99.8	232.7	156.9	100.4
베트남			18.1	329.4	142.0	-
홍콩	6	5,798.3		80.9	119.1	74.9

한국		2,676.4	25.6	37.9	60.9	27.5
중국	2.5	8,269.2	4345.7	231.8	56.9	220.9
일본	-12.0	7.1	4.3	54.1	60.9	13.9
인도			73.0	11.5	26.0	83.2
기타	41.0		26.0	13.4	36.0	557.9
합계	329.6	19,999.0	4,644.5	1,419.5	4,107.1	3,183.4

자료원: 미얀마통계청(2014.12월 발표기준)

나. 우리기업 진출 동향

(1) 수출입 동향

□ 對미얀마 수출입 동향(2013년)

- (수출)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47% 감소한 7억 510만 달러 기록
 - 산업기계, 식물, 수송기계, 석유화학, 섬유 등 전 품목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동안 대 미얀마 수출액의 62%를 차지했던 철강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대 미얀마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
- (수입)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38.9% 증가한 4억 8777백만 달러를 기록
 - 의류 등 섬유제품의 수입이 전년대비 40.3%가 증가한 3억 9,289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대부분(80%)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수입비중 13.8%의 농산물로 6,734만 달러, 3위는 임산물로 967만 달러를 기록

대미얀마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US\$천, %)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9	406,153	66.6	78,350	-32.6	327,803
2010	478,809	17.9	159,892	104.1	318,917
2011	666,742	39.3	298,681	86.8	368,061
2012	1,330,892	99.6	351,164	17.6	979,728
2013	705,109	-47.0	487,769	38.9	217,340
2014	800,620	13.5	579,718	18.9	220,90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OTIS)

□ 對미얀마 수출(2014년)

- (수출) 2014년, 전년 대비 13.5% 증가한 8억 62만 달러 기록
 - 제조업 투자 증가로 산업기계(30.2%), 섬유제품(27%), 플라스틱 제품(11.6%), 산업용 전자제품(64.4%), 중전기(68.4%) 등의 수출 증가
 - 건설/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중장비(\$115백만, 52.9%), 차단기(\$8백만, 349%), 특장차(\$6백만, 273.7%), 전력용전선(\$3백만, 599%) 등도 증가세
 - 그동안 수출을 주도하던 철강 및 비합금강 형강은 가격경쟁력 약화,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인해 감소세(-51.1%) 기록

대 미얀마 10대 수출품목

(단위: U\$천,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수출액	1,330,892	99.6	705,109	-47	800,620	13.5
1	72	산업기계	85,472	-48.4	115,272	34.9	150,071	30.2
2	74	수송기계	74,858	1.8	89,064	85.7	139,891	57.1
3	43	직물	85,472	-48.4	101,922	36.2	84,509	-17.1
4	44	섬유제품	42,211	15.9	45,209	35.4	57,413	27.0
5	21	석유화학제품	47,957	27.9	65,883	56.1	46,883	-28.8
6	31	플라스틱제품	30,131	-6.3	32,641	8.3	36,421	11.6
7	22	정밀화학제품	27,874	24.8	27,551	-1.2	33,812	22.7
8	61	철강제품	828,374	461.8	28,623	-96.5	29,025	1.4
9	2	축산물	33,396	6.7	37,660	96.5	26,811	-28.8
10	62	산업용 전자제품	10,164	31.6	15,454	52.0	24,406	64.4

자료원: KOTIS, 품목코드는 MTI 2 단위 기준

주: 2014년 금액기준 순위 집계

- (수입) 2014년, 전년 대비 18.9% 증가한 5억 797만 달러 기록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CMP 투자 증가로 전자부품(40천%↑), 공예품(23천%↑), 보석 및 귀금속제품(5천%↑), 정밀화학제품(2천%↑) 등이 금액 비중은 낮으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대 미얀마 10대 수입품목

(단위: U\$천,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351,164	17.6	487,769	38.9	268,935	30.4
1	72	산업기계	85,472	-48.4	115,272	34.9	150,071	30.2
2	74	수송기계	74,858	1.8	89,064	85.7	139,891	57.1

3	43	직물	85,472	-48.4	101,922	36.2	84,509	-17.1
4	44	섬유제품	42,211	15.9	45,209	35.4	57,413	27.0
5	21	석유화학제품	47,957	27.9	65,883	56.1	46,883	-28.8
6	31	플라스틱제품	30,131	-6.3	32,641	8.3	36,421	11.6
7	22	정밀화학제품	27,874	24.8	27,551	-1.2	33,812	22.7
8	61	철강제품	828,374	461.8	28,623	-96.5	29,025	1.4
9	2	축산물	33,396	6.7	37,660	96.5	26,811	-28.8
10	62	산업용전자제품	10,164	31.6	15,454	52.0	24,406	64.4

자료원: KOTIS, 품목코드는 MTI 2 단위 기준

주 : 2014 년 금액기준 순위 집계

(2) 투자진출 동향

□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현황

- (투자액)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신고 누적액(1968~2014.9월)은 4,762백만 달러(전체 투자의 1.23%)이며, 실투자액은 2,150백만 달러(전체투자의 0.79%) 차지
- 2013년 기준 미얀마 투자액은 신고액 1억 48백만 달러, 실투자액 5억 4백만 달러
- 2014년 1-9월까지 4억 34백만 달러, 실투자액 2억 44백만 달러 기록하여 2012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의 대 미얀마 연도별 투자통계

(단위: 건, 사, US\$천)

연도	우리나라의 대외 직접투자 전체				대미얀마 직접투자			
	원주	습환	심곡	통합	원주	습환	심곡	통합
2009	7,524	2,480	30,747,747	20,381,579	8	3	3,533,271	350,894
2010	8,084	2,887	34,353,175	24,366,221	10	2	233,038	197,341
2011	7,862	2,761	45,534,749	26,494,836	20	8	108,679	422,907
2012	7,535	2,470	39,007,974	23,163,930	19	9	42,090	315,380
2013	7,967	2,776	35,120,076	24,053,643	85	24	148,795	504,589
2014.9	5,930	2,070	22,897,360	17,455,045	72	45	433,727	244,035
전체누계 (68-14.9)	134,093	58,934	387,439,955	270,431,357	335	161	4,761,582	2,149,617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 (업종별) 법인 수 기준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도소매업의 투자가 전체 70%를 차지, 금액 기준으로 대우E&P의 가스전 투자(27억 달러)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75% 이상을 차지하며, 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한국의 대 미얀마 업종별 투자통계

(단위: 천, 사, US\$천)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1	4	15,293	0.32%	8,873	0.41%
광업	12	7	3,651,280	76.68%	1,680,448	78.17%
제조업	181	75	299,500	6.29%	163,256	7.59%
건설업	16	14	2,832	0.06%	1,621	0.08%
도매 및 소매업	40	19	18,527	0.39%	14,390	0.67%
운수업	13	9	694,137	14.58%	271,798	12.64%
숙박 및 음식점업	2	0	60,000	1.26%	0	0.00%
금융 및 보험업	9	4	6,400	0.13%	1,571	0.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5	3,085	0.06%	2,000	0.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	18	4,627	0.10%	3,210	0.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	50	0.00%	50	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700	0.01%	148	0.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3	4,671	0.10%	1,773	0.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480	0.01%	480	0.02%
합 계	335	161	4,761,582	100%	2,149,617	100%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주 : 비중은 실투자액 기준

(3) 미얀마 진출 성공 및 실패사례

□ 성공사례 : 대우인터내셔널

- 투자기업 개요
 - 기업명 : 대우인터내셔널(시행)
 - * 포스코 E&C(시공), 롯데호텔(운영), IGE(미얀마 파트너)
- 진출지역 : 미얀마 양곤
- 진출연도 : 2013년
- 투자방식 : BOT(50년 + 추가 10년씩 2회)
- 투자형태 : JV
 - * 한국(Global Development 85%), 미얀마(IGE Sin Phyu Shin 15%)
- 투자규모 : 2억 2천만 달러
- 투자대상 : 호텔(14층 348개 객실) 1동, 레지던스(29층 315개 객실) 1동

* 면적 : 22,237㎡ (Total floor area : 104,123㎡)

- 투자진출 배경 : 미얀마의 시장재개방 이후 외국인투자 진출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호텔 및 고급주거지 부족

- 성공사례 주요내용

- 대우는 지난 1985년 세계물산의 봉제업 투자를 시작으로 미얀마에 본격적으로 투자하여 이후 대우전자, 대우봉제, 대우합판, 대우중장비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였고, 지난 2000년부터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여 '쉐(Shwe)' 가스전 등 3개 가스전에서 2013년 7월부터 상업생산 개시하였음
- 가스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어 가고,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 호텔, 레지던스, 아파트 등 현지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이 크게 부족해짐에 따라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2012년부터 본격적인 진출을 모색
- 현지 로컬기업인 IGE 등과 함께 JV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얀마 중심부에 위치한 인야 호수 인접 용지에 대한 미얀마 정부로부터 최대 70년 사용허가권을 받아, 동 부지내에 15층 규모(총 346실)의 럭셔리 호텔 1동과 29층 규모(총 315실)의 레지던스 호텔 1동 2개 동을 건설·운영할 계획임
- 동 프로젝트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입찰 단계부터 토지사용 허가까지 전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주관사로 참여하였으며,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호텔 및 레지던스 운영은 호텔 롯데가 맡고, 대우증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2014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완공, 201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예정

- 투자 성공 시사점

- 대우는 1985년 처음으로 미얀마를 진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2003년 미얀마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하였고, 특히 1970년대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석유/가스 회사들이 7개 탐사정을 시추했다 실패한 가스전을 인수하여, 새로운 탐사 개념을 도입,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의 가스전에서 대규모 가스를 발굴, 2013년 상업생산에 성공함으로써 미얀마 정부의 신임을 받았음
- 이러한, 미얀마 정부의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신뢰는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다수의 외국기업이 복합부동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미얀마 정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허가를 승인받아 호텔사업 등 복합부동산사업

추진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음

□ 투자기업 개요 : M사

- 진출지역 : 미얀마 양곤
- 진출연도 : 2013년
- 투자형태 : 100% 단독투자
- 투자규모 : 87만불
- 직원 : 757명
- 주요품목 : Golf Shoes, Hiking Boots, Boston Bags, Golf Bags
- 투자진출배경 : 동사는 중국에서 신발 및 가방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으나, 현지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미얀마로 제조 거점을 이전
- 실패사례 주요내용
 - M사는 중국에서 골프 및 스포츠 신발, 골프백 등을 제조하였으나, 현지의 지속적인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제조거점 이전을 모색하였음
 - 동사는 2011년 시장 재개방 이후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봉제업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미얀마에 주목하였고, 이후 미얀마에서 봉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제조거점을 중국에서 미얀마로 이전하기로 결정
 - 2013년 흘라잉 따야 공단에 입주한 동사는 미얀마외국인투자위원회(MIC)의 정식 투자 승인을 받아 신발제조 라인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신발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신발 제조 인력이 풍부한 중국과 달리, 2012년까지 10년간 지속된 대 미얀마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신발 제조 인력이 부족하여, 품질 관리 및 생산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음
 - 동사가 한국의 모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신발 납품 건에 대해 품질 문제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이후 주문이 감소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후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2014년 6월 20~25일 조업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6월 26일 경영난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공장을 폐쇄하였음
 - 한편, 미얀마 노동부는 M사의 직원 임금과 사업장 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사의 무역 담당 한국인 매니저와 미얀마인 총무 담당자를 제소하였으며, 9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

- 투자 실패 시사점
 - 미얀마 신발 제조 산업 및 현지 근로자의 생산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단기간내 성급한 투자를 하였으며, 결정적으로 현지 생산된 제품이 바이어가 원하는 수준에 품질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납품한 결과, 클레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주문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직면하게 됨
 - 2011년 10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미얀마 근로자의 노조 결성과 파업권 행사가 허용되면서 각지에서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내 강성노조가 결성되어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 점도 한 원인으로 지목됨

다. 2015년 무역관 추진사업(잠정)

□ 미얀마 한국일류상품전

- 시기/장소 : 2015년 5월 21일- 24일 / 양곤 MEP
- 주 관 : 산업부, KOIRA
- 참가품목 : 한국산 제품, 한국 기술로 제조한 상품 또는 설비
- 참가기업 : 미얀마 진출 및 진출 관심 한국기업 60개사 내외
- 사업목적 : 한-미얀마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류를 통해 촉발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우수 상품 및 서비스로 확산
- 사업내용
 - 인근국 및 한국기업의 우수한 품질의 한국상품 및 설비를 미얀마 현지인, 로컬 기업에 홍보, 전시 및 판매 지원을 통한 미얀마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지원
 - K-Pop Concert, 아시아 뉴스타 모델대회, 한국영화제 등 한류행사와 한국 상품전 등을 연계, 문화와 산업 양방향에서 한류 붐 확산

□ 서비스업 진출기업 미얀마 확대 사업(한류TV 연계)

- 시기/장소 : 연중 / 양곤
- 사업목적 : 한류TV와 연계, 우수 서비스기업을 미얀마에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기반 제공(서비스 문두스 사업 연계)
- 참가기업 : 국내 서비스기업 중 미얀마 진출 유망 기업

- 참가품목 : 방송, 교육, 디자인, 프랜차이즈 등 10개사 내외
- 사업내용
 - 한류TV(4Ladies Channel)와 협력,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 예능과 기업홍보를 합한 프로그램 제작
(예: 한국의 교육 열풍 따라잡기(한국의 학습지업체 소개), IT배우기 시리즈(IT교육 업체), 찾아라 한국의 맛집(프랜차이즈 업체 소개) 등)
 - 한류TV 제작비-참가기업 참가비-KOTRA 서비스문두스 육성자금 상호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

□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관(MYANTRA) 설립 지원 프로젝트

- 기간 : 2014년 하반기 ~ 2016년
- 프로젝트 규모 : 3백만달러
- 프로젝트 형태 : ODA(무상원조)
- 주요내용
 -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관 설립 지원

분류	주요내용
정책 및 제도	-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진흥정책 연구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개발, 전략 수립 및 연구 -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
관련 법령	-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령 개선 -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규제 개선
기관 설립	- 기관 설립 절차 - 조직 설계 - 중장기 기관발전 로드맵 설계
기관역량 강화 및 발전	- 조직역량 강화 방안 설계 - 사업추진 매뉴얼 작성 - 기관 홍보 방안 및 홍보 자료 작성

- 진행사항
 - MYANTRA 설립 관련 양국간 합의(2014.3)
 - MYANTRA ODA 사업발주(2014년말)
 - MYANTRA 설립 사업시행(2014년~2016년)
 - * 설립 관련 기본 마스터 플랜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자료 문의

- KOTRA 신흥시장팀 안유석 차장
- TEL 02-3460-7312 | FAX 02-3460-7914 | EMAIL sean-ahn@kotra.or.kr
- KOTRA 양곤무역관 고성민 차장
- TEL ++95-1-255-453 | FAX ++95-1-255-457 | EMAIL caseyko@kotra.or.kr

. 끝.